

# 춤으로 다져진 아이돌, 이젠 묵직한 '연기돌'

웬만해선 솟구치지 않는다. 배우 도경수(25)는 쉽사리 출렁이지 않는 물결 같다. 지금껏 8편의 영화와 5편의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그가 크게 울거나 우는 장면을 보기란 쉽지 않다.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 '디오'로 데뷔할 때부터 "과묵한 아이돌"로 유명했던 그다. 팬들이 지어준 별명도 그래서 '알모경'. '알다가도 모를 도경수'라는 뜻이다. 이 과묵한 청춘 배우는 그만큼 그가 정(靜)에서 동(動)으로 옮겨가는 순간을 기민하게 확장시킬 줄도 안다. tvN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에서 그가 보일락 말락 하게 웃을 때 시청자는 로맨스를 예감했고, 지난 19일 개봉한 영화 '스윙키즈'에서 주인공 로기수가 발을 까닥거리는 순간이 곧 하이라이트임을 관객이 직감했다. 도경수라는 배우가 미세한 몸짓으로도 클라이맥스를 빚어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가 출연한 영화 '스윙키즈'가 지난 27일 개봉 9일 만에 관객 100만명을 넘겼다. 경쟁 작품에 비해 적은 수의 스크린으로 출발했고, '범블비'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공세가 거세지만, 입소문으로 뒷심을 발휘하는 중이다. '스윙키즈'의 강형철 감독은 "도경수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해냈다"고 말했다.

### ◇과묵하고 묵직한 클라이맥스

관객 1400만명을 동원한 '신과 함께-죄와 벌'에서 도경수가 맡은 역할은 군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소위 '관심사병' 원일병. 대사가 많지 않지만, 이 영화의 이야기가 끓어오르는 지점을 맡는 것이 원일병이다. 원일병이 실수로 쓴 총성 한 발로 영화가 급물살을 타기 때문이다. 2016년 영화 '행'도 비슷하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조정석이 맡은 고두식. 조정석이 화려한 에드트리브와 몸개그로 관객을

## 도경수

엑소의 디오로 데뷔했지만 벌써 영화 8편, 드라마 5편 사연 많은 청춘 대변

천천히 감정 쌓아올리다가 터트리는 클라이맥스 압권



친숙한 감정은 친숙한 동작으로 낮은 감정은 낮은 동작으로 표현

잘 깎은 밤들처럼 생겼지만 눈빛에선 오기와 반항기도 번득인다. 도경수가 사연 많은 청춘을 대변해 온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NEW

흔들 때 도경수는 곁에서 묵묵히 얘기를 듣는 동생 고두영을 연기했다. 들떠 있기 보단 묵직하게 상대방을 받아주는 배우. 도경수는 그렇게 의외의 무게중심으로 극을 이끌어왔다. 이 침착한 배우가 천천히 감정을 쌓아 터트릴 때의 효과는 그래서 더 크다. 영화 '행'에서 고두영이 유도 경기 도중에 "행!"을 외치며 울부짖을 때가 그렇고, 영화 '스윙키즈'에서 로기수가 "탱댄스라는 거야 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라고 입을 떼며 발목을 움직일 때가 그렇다. "난 구르고 싶지 않다. 이대로 있어야겠다." tvN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에서도 주인공 원일의 이 고백 역시 참으로 무뎠다. 그 무심한 대사 톤에 여성 시청자들은 비명을 질렀다.

### ◇탄력 넘치는 고무출처럼

"너 솔직히 보이지?" 영화 '행'에서 도경수가 연기한 시각장애인 고두영이 형고두식을 얻어치기로 넘어뜨리자 두식이 외친 말이다. 표정은 함축적이지만 동작만큼 유연하고 큼직한 것도 도경수의 특징. 춤으로 다져진 아이돌 가수 출신이기에 가능한 영역이다. 도경수가 "아이돌임에도 연기를 잘한다"가 아닌, "아이돌 출신이기에 연기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윙키즈'에서 그는 즐거울 땀 동작을 크게, 답답할 땀 빠르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격렬한 감정을 눈물이나 웃음이 아닌 춤으로 그려냈고,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선 루게릭병으로 몸이 굳어져 가는 장면을 세밀하게 표현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친숙한 감정은 친숙한 동작으로, 낮은 감정은 낮은 동작으로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스러움이 무엇인지 이미 깨친 그의 말이다. 송혜진 기자

### 一事一言

#### 발레는 피부색 혁명 중



피부가 까무잡잡한 나는 '색 보정'이 필요한 존재였다. 발레단에선 주역 무용수만 몸에 분을 바른다. 그런데 '백조의 호수'처럼 흰 튀튀를 입는 군무에서 내가 도드라지다 보니 분장 담당자가 한숨을 쉬며 나에게 분을 발라주곤 했다. 은연중에 주눅이 들었다. 발레는 지금 피부색 혁명 중이다. '흑인은 발레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념이 급격히 깨지고 있다. 미스티 코플랜드를 비롯하여 스타급 흑인 무용수들이 등장하고 흑인 인구를 발레에 유입하려는 사회운동도 활발하다. 토슈즈와 타이즈 색깔도 다양해지고 있다. 흑인 발레리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발레단의 최신 홍보 전략일 정도다.

이 혁명의 시발점이라 꼽을 수 있는 두 인물이 올해 타계했다. 아서 미첼과 레이브 윌킨슨이다. 미첼은 1950년대 뉴욕시티발레단의 첫 흑인 주역 발레리노. 재능과 운을 모두 갖춘 무용수였으나 마틴 루서 킹의 암살에 충격받아 흑인을 위한 발레단과 발레 학교를 세웠다. 윌킨슨은 미국 남부 지역 순회공연에서 KKK단이 객석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대 위에 올라와 그녀를 잡아 내리려 했다. 누적인 공포 속에서 윌킨슨은 2년 만에 발레단을 그만두었다. 미첼과 윌킨슨은 같은 해에 데뷔했지만, 미첼이 영웅적 선구자가 될 동안 윌킨슨은 춤추고 싶다는 열망조차 접어야 했다. 그들의 대조적인 삶은 인종차별 안에서의 성취를 드러낸다.

막상 깨지고 나면, 통념이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통념을 깨뜨리기 위해선 끈질긴 저항이 필요하다. 수많은 이가 거리에 나오고, 누군가 자처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안타까운 희생자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꿈쩍하지 않던 통념이 어느 순간 깨진다. 내년엔 어떤 체형이나 피부색이, 누군가의 정체성이 나 문화가 발레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언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 정옥희·무용 연구가



## 힘 못쓰는 한국 대작 영화들... '퀵' 900만 찍었다

### 보헤미안 랍소디, 계속 뒷심 발휘 마약왕 누르고 다시 3위로

한국 영화의 부진이 '보헤미안 랍소디'의 성공을 키웠을까? 퀵의 전기를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가 29일 관객 900만명을 넘어서며 2013년 개봉한 '아이언맨3' (900만1679명)를 누르고 국내 개봉 외화 중 흥행 6위에 올라섰다.

당초 영화계에서는 '퀵 신드롬'이 연 말이면 한풀 켜질 것으로 예상했다. '마

약왕' '스윙키즈' 'PMC: 더 벵커' 등 1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한국 대작 영화들이 연말 연이어 개봉했기 때문. 하지만 '보헤미안 랍소디'의 관객 수는 좀처럼 줄지 않았고 다시 박스오피스 3위까지 올라섰다. 영화 관계자들은 "최근의 한국 영화가 기존의 흥행 공식을 넘어선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한 몫했다"고 했다.

한국 영화의 흥행 성격이 시장 성수기로 꼽히는 12월에 외국 영화에 뒤진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달(1~29일) 한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47.2%로, 2011년(37.4%) 이후 처음으로 외국 영화를 넘어선 못했다. '신과 함께-죄와 벌' '1987' 등이 연말 흥행하며 관객 점유율 78.2%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대폭 줄었다. 반사이익은 외화가 됐다. '보헤미안 랍소디'가 승승장구했고, '아쿠아맨'이 300만명을 돌파했다. '범블비'도 흥행 중이다. 강유정 영화평론가는 "기존 한국 영화는 신선한 내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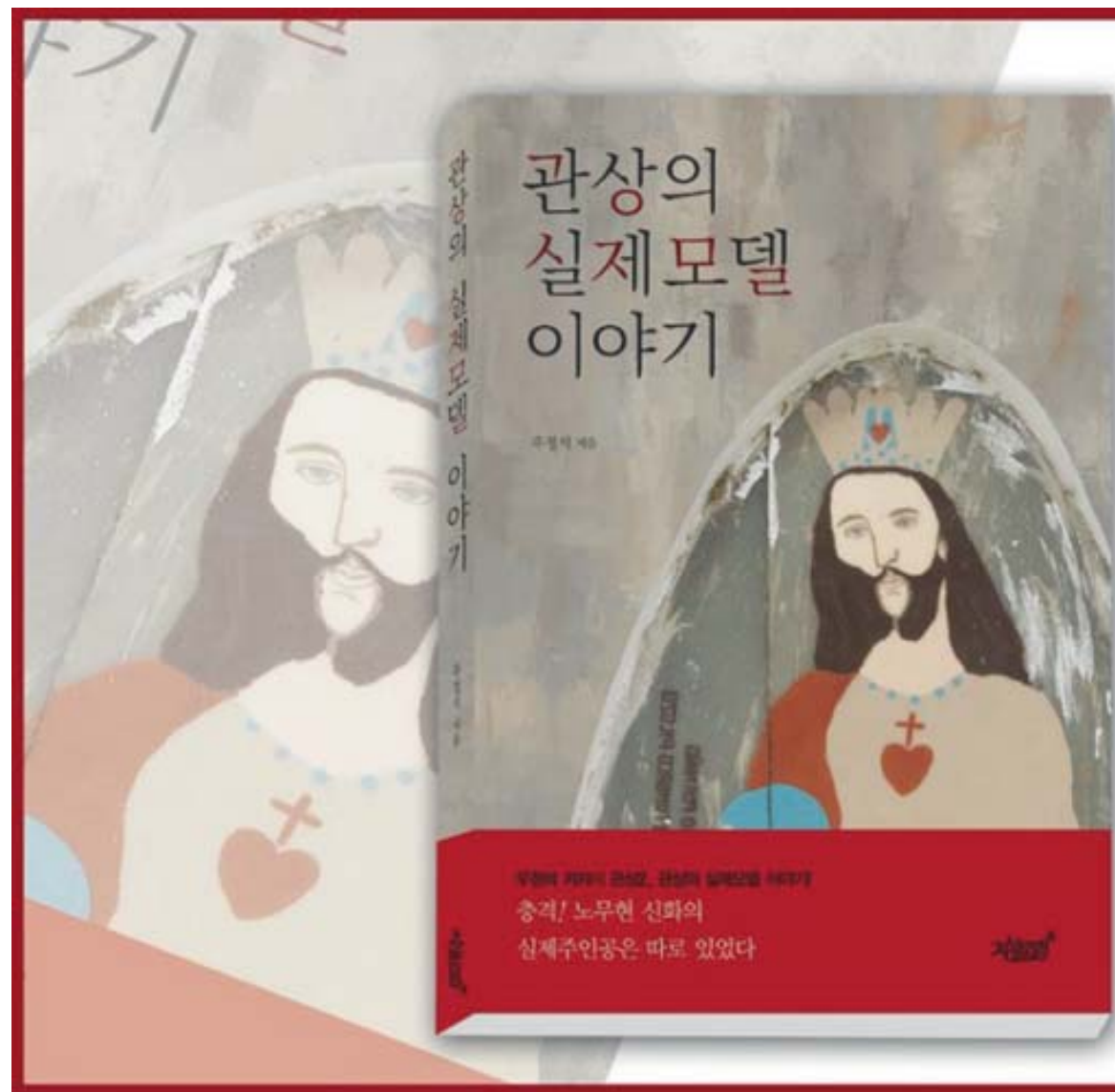
브의 힘으로 관객을 불러 모았는데, 최근 영화 제작자들이 막대한 제작비와 스타 배우를 투입하는 할리우드 장르 영화 제작법을 어설피게 따라 하다 실패했다"며 "수준 높은 외국 장르 영화를 대거 접해온 한국 관객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올해 감쪽 흥행했던 영화들은 하나같이 장르에 얽매지 않는 신선한 내러티브를 보여준 경우였다. '곤지암' '완벽한 타인' '암수살인' '미스백' 등이 대표적이다.

김시무 영화평론가는 "제목만 바뀌었을 뿐 포맷과 내용, 출연 배우마저 2~3년

전 흥행한 영화와 똑같다 보니 관객들이 외면한 것"이라며 "마약왕"은 3년 전 잔혹성과 연기와 배우들의 조합으로 흥행했던 '내부자들'의 공식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다 새로움이 없는 영화가 됐다"고 했다.

영화시장분석가 김형호씨는 "올해 11월 이전까지 외국 영화의 성적이 평균보다 저조했고, 그간 쌓여왔던 외화 수요가 연말 '보헤미안 랍소디'와 '아쿠아맨' 등에 폭발적으로 집중됐다"며 "한국 대작 영화들이 연말 같은 시기에 3편이나 연말이 개봉하며 관객이 분산된 이유도 크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 충격! 노무현 신화의 실제 주인공 따로 있었다

기독교 경제운동은 노무현 신화로 여론 조작이 되어 있었고 실제 주인공은 성경에 나온 전신갑주를 사용해 여의도순복음 교회를 접수하고 그 힘을 노무현때 사용하여 기독교 경제운동을 일으키고 이명박 대통령초 2008년말 경제위기때에도 기독교 경제운동을 다시 일으켜 나라를 살리나 오히려 블랙리스트 보다 잔인한 민주당 해당행위란 학대와 감시속에 10여년 동안 다섯번의 예배를 드릴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았으나 작가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씁니다. 실화이며.....본문 중

우정석 지음 | 15,000원 | 지식과감정